

# UC Berkeley Summer Session 2015 참가 후기

20120401 수학과 김민석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도 UC Berkeley로 summer session을 다녀온 12학년 수학과 김민석입니다. UC Berkeley로 summer session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보통 친한 친구들과 함께 summer session을 지원해서 여행을 다니고 하던데, 저는 신청 마감일 며칠 전에 지원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혼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케이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건데, 저의 경우 평소 잘 모르던 지내던 포스텍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전에 외국에 오래 나가 있던 적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주변에 UC Berkeley를 다녀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 I. SUMMER SESSION 지원

학기 초에 교내회보에 선발공고가 올라오는데 지원서, 추천서, 영어 성적(토플 또는 영어인증제)을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이했던 사항은 지원서에 study plan 항목이 있어서 미리 수강할 과목을 조금 생각해 가야 했습니다. 저는 토플 성적표를 잃어버려서 난감했었는데 토플 사이트에서 캡처한 것을 제출해도 인정해주었습니다.

## II. SUMMER SESSION 등록 및 준비

### 1. 수강신청

summer session 선발이 되고 나면, 딱히 학교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어서 알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강신청을 가장 빨리했어야 했는데, Berkeley로 summer session을 오는 학생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http://summerberkeley.edu>에 들어가서 개설 과목 정보를 확인한 뒤 최대한 결제를 빨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3학점 수강에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개강 날짜에 따라 A F session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종강이 늦어 C, D, E session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C session은 8주라 종강하자마자 바로 미국에 가야 되고, E session은 4주라 너무 짧아 보통 6주짜리 D session을 많이 신청합니다. 저는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인정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좋아하는 과목을 들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판단하여 제가 관심 있는 과목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평소 수학, 물리,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수학과, 물리학과 과목들은 기본적인 과목 외에 개설되지 않아서 그나마 비슷한 천문학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다녀온 형이 들었던 econometrics가 정말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을 더 공부할 학생들에게 많이 유익해보였습니다.

### 2. 기숙사

수강신청 다음으로 기숙사를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http://ihouse.berkeley.edu>에서 아이하

우스(international house)를 신청했습니다. 신청과정은 phase1, phase2로 나누어져 있어 꽤 길었는데, 재학증명서, welcome letter, 시간표, 여권, statement of interest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밀포인트 60기를 끼워팔아서 많이 비싼데, 예치금 100만원을 포함한 370만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예치금 100만원은 방을 다 사용하고 난 뒤 9월 달에 돌려주었습니다.

### 2. 비행기

가장 돈을 쉽게 아낄 수 있는 게 비행기 표를 빨리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항공을 이용했는데, 다소 늦은 6월 초에 결제를 해서 왕복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일찍 비행기표를 선 친구들은 100만원 선에서 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까지 11시간 정도 걸렸고, 비행기 안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 3. 비자, 여행자 보험

저는 3학점만 수강해 ESTA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인터넷상으로 간단하게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국제관 1층에 있는 포항공대 여행사를 찾아가서 섬머세션을 간다고 말한 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 4. 들고 갈 짐

우리나라 여름 날씨와는 달리 밤에는 조금 서늘해서 가을옷을 챙겨가야 합니다. 110V를 사용하여 돼지코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멀티탭, 헤어드라이기, 슬리퍼, 후시모를 상비약, 뽕아 쓰는 세제 등을 가져갔습니다.

### 5. 미국에서 사용할 체크카드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게 수수료가 없어서 좋지만, 만들기가 귀찮을 거 같아서 한국에서 만들어 갔습니다.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비행기 표가 필

요했습니다. 버클리 주변 씨티은행은 다운타운 버클리 역에서 한블럭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 6. 핸드폰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미국에 가서 미국 통신사 T-mobile을 찾아가 유심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1달 동안 미국 내 통화 무제한, 데이터 3GB에 70달러 들었는데, 섬머세션 기간이 6주라 아깝긴 하지만 2번 결제했습니다.

## III. UC BERKELEY 생활

### 1. 아이하우스(international house)

유학생들이 사는 곳으로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한국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아이하우스는 같은 층에 남자 여자가 함께 생활하고, 방은 2층 침대로 되어있어 우리 학교 기숙사보다 조금 좁습니다. 베개와 이불은 한국에서 가져오기가 귀찮아서 여기서 70달러를 주고 구매했습니다. 아이하우스의 메리트 중 하나가 인터넷으로 아이하우스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찍 sold out되어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하우스 식당은 뷔페식으로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으나 계속 비슷한 음식만 나와서 나중에는 조금 질렸습니다. 아이하우스에 살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도 밀포인트를 찍어줄 수 있는데, 그래도 20끼를 남기고 와서 많이 아까웠습니다. 식당 옆에는 아이하우스 카페가 있는데 밀포인트로 40달러까지 커피, 스무디, 빵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하우스 1층에는 게임룸이 있어서 포켓볼, 탁구, 축구 보드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키친이 있어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삼겹살, 떡볶이, 라면 등을 몇 번 요리해 먹었습니다. 아이하우스의 특이한 점 중 하나가 매주 수요일마다 특정 나라 컨셉으로 1층 홀에서 파티 비슷하게 하는데 외국인들이랑 얘기하고 사진을 찍거나 페이스북 친구추가를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는데 가끔 RA가 찾아와 미성년자가 있는지 검사했습니다. 미국은 만 21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입니다.

### 2. 교통수단

수업이 화수목 주 3회라 여행을 다녀오기에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미국 교통수단이 한국만큼 잘 돼 있지 않아 멀리 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차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주변에 운전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버스, bart(지하철 유사), uber(택시 유사), 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 버스

버클리 학생증이 있으면 샌프란시스코까지도 F번 버스를 무료로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버스 도착시간은 AC transit이라는 어플을 이용했는데 정말 정확했습니다.

- 바트(bart)

그냥 지하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갈 때마다 이용했습니다.

- 우버(uber)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차로 승객을 태워주는 시스템인데 uber라는 폰 어플로 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면 promotion code를 줘서 20달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uber 어플을 친구에게 추천한 뒤 친구가 가입하면 promotion code를 또 얻을 수 있어서 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3. 수업

제가 들은 selected topics in astronomy는 개론 느낌의 수업이었는데 물리학적 지식이 조금씩 쓰였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수업 중간 중간에 외국인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끄는 느낌을 많이 받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랭 다르게 최고 학점이 A였고,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과제 비중이 높은 편이었는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같이 수업을 듣는 디지스트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했습니다.

### 4. 버클리 주변 먹거리

김치가든 -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한국 음식점입니다.

Lotus house - 중국음식점인데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봉고버거 - 버클리에만 있는 햄버거집이라 들었습니다.

유레카 - 수제버거 집인데 제가 먹어본 버거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습니다.

크림 -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집인데 거의 항상 줄이 길게 있었습니다.

탐도그 - 저렴한 가격의 핫도그가 있습니다.

share tea - 공차가 영어로 share tea 였습니다.

요거랜드 - 재료들을 자기가 직접 골라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 5. 기타

체육관 - RSF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10달러만 내면 섬머세션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가격이 싼 거 같습니다. 농구도 할 수 있고, 스쿼지도 할 수 있습니다. RSF 말고도 아이하우스에 가까운 스타디움에도 체육관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 다운타운 버클리 쪽에 영화관이 좀 있던데 인사이드 아웃, 테드2를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애니메이션이라 조금 이해가 갔는데, 테드2는 영어로

조크를 하다보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술을 살 수 있는 곳 - 텔레그래프 에비뉴를 따라서 크림을 지나 더 가면 노란불빛의 간판 Deli라는 곳이 있는데 11시 정도까지 합니다. 거기서 더 가면 세븐일레븐이 나오는데 한국과는 달리 12시까지밖에 안 합니다. 듀렌트 에비뉴쪽에도 있습니다.

#### IV. 버클리 주변 가볼 곳

##### 1. 샌프란시스코

시간이 날 때마다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PIER 39, Fisherman's Wharf, Coit Tower, Lombard Street, Golden Gate Park 등 가볼 곳이 정말 많습니다. 샌프란을 갈 일이 많다고 생각하여 매번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갔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쇼핑을 많이 했는데 유명 브랜드의 재킷이 한국에서는 70만원인데 여기서는 170불에 사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먹거리로는 Tad's steak house, In and out burger, cheese cake factory, super duper burger 등이 있습니다.

##### 2. 소살리토

작은 부자동네 마을인데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저녁을 먹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갈 때는 우버를 타고 갔고, 샌프란으로 돌아올 때는 페리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 3. LA

같이 버클리로 섬머세션을 온 포스텍 친구의 도움으로 정말 재미있게 갔다 왔습니다. expedia.com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일찍 사서 2박 3일로 다녀왔는데, 로데오 거리,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 거리, 게티 센터, 산타모니카 해변 등을 갔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장소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 4. 요세미티 국립공원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대자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첫날에는 자전거를 대여해서 국립공원을 돌아다녔고, 둘째 날에는 버스투어를 하였습니다. 전화랑 데이터가 터지지 않습니다.

#### 5. six flags

다양한 종류의 롤러코스터가 있는 놀이동산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는 월요일에 가서 마음껏 타고 왔습니다. 슈퍼맨이라는 놀이기구가 제가 살면서 타 본 놀이기구 중 가장 스틸 넘쳤습니다.

#### 8. 오클랜드

위험하다고 알려진 지역인데 야구장과 코리아나 플라자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축구를 보는 것처럼 미국에 왔으니 야구를 한 번 보러 갔습니다. 코리아나 플라자는 한인마트로 한국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도 학생증이 있으면 버스를 타고 공짜로 올 수 있습니다.

#### V. 후기를 마치며

6주 동안 버클리에 있으면서 영어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영어를 어느 정도만 해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다음에 미국에 오래 머무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가서 여러 활동을 해보고 싶고, 운전도 배워서 더욱 다양한 곳을 다녀오고 싶습니다.